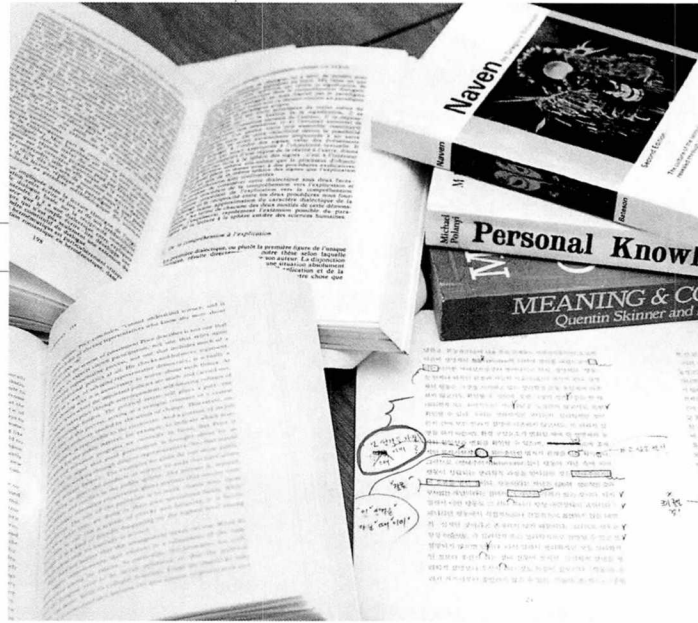


편집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번역과 번역문화

우수한 번역을 위한 출판 내외 요건 갖춰야...

좋은 번역서 금세 사라지는 출판문화 극복도 시급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이 말은 번역자의 역량과 노력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편집자들에게는 번역자와의 소통은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번역물을 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번역은 두 이질적 문화를 언어로 소통시키는 일이기에 편집자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번역서를 편집할 때 편집자는 독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사진은 원서와 교정지.

우리나라 번역서 편집자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은 우수한 번역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문서의 경우 후보자의 연구 업적, 번역 성과 등을 고려해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섭렵한 적임자를 찾는다. 그 뒤 번역한 책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사고체계와 언어구조가 다른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우리말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번역어를 찾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번역자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번역 수준 나아졌지만 원전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인문학 도서는 해당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받은 번역원고의 60% 정도는 역자의 편협한 이해 방식에만 의존해 텍스트를 번역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책세상의 김미진 차장은 지적한다.

“독일어에서는 주로 명사와 명사, 전치사와 명사 등을 연결해 문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었을 경우 목적격, 소유격, 주격 등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편집자가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문장의 뜻이 왜곡될 우려가 높다.”

이것은 외국어와 우리말의 문장구조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글의 맥락과 상관없이 옮겨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해당분야의 전공 교수들이고 훌륭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번역으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입증하는 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주로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 가운데 번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번역가를 선호한다. 물론 번역가가 되려는

새내기 번역가들에게 번역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 편집 과정에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민음사 논픽션팀 송정하 팀장은 책마다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주로 번역원고를 읽으면서 어색한 문장을 체크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면 원문을 일일이 대조하는 일도 있다. 다시 고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번역가라면 몇몇 부분만 고쳐서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자가 직접 달려들어 고칠 때도 많다.”

송팀장은 최근 들어 젊은 번역가들 사이에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체로 번역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전문번역가들은 원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곧잘 바꿔 놓는다. 그러나 인문서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에만 매달리는 예도 적지 않아 편집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고 털어놓는다.

역자 이끌어갈 편집자 역량 요구돼 번역물의 특성상 편집자에게도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번역서를 편집할 때 역자와 같은

입장으로 글을 읽는 것은 편집자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다. 어색한 번역투 문장이나 억지로 꾸민 문장에 편집자 자신도 빨려들기 쉬워 여간 주의를 요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독자 입장에서 글을 대할 때 좋은 번역서가 나올 수 있다. 모든 것을 역자에게 맡겨서는 좋은 번역이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편집자가 역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책세상의 경우 “잘 고쳐지지 않은 교정지는 함부로 역자에게 보내지 않는다”고 김차장은 밝힌다. 편집자가 만족할 만큼 문장이 고

쳐지면 비로소 역자에게 넘겨 다시 손보게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요구해야 할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만 좋은 번역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김차장의 생각이다.

소설 번역의 경우 몇몇 전문 번역가들에게 작업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어떤 전문번역자는 이미 1년 계획이 잡혀 있기도 하다. 검증된 번역가들을 출판사가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번역가에게는 일정하게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지만 이것이 번역에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역자가 맡은 분량이 늘어나면 결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없다. 단 1페이지의 번역이라도 한시간에 번역한 것과 하루에 번역한 것, 또 한달에 걸쳐 번역한 것은 그 수준차이가 확연하다.”

문학동네 편집부 신선영씨의 말이다. 신씨는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많아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말을 갈고 닦는 데 열정을 쏟으면서 역자로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번역가가 한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게 출판사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번역에 대한 인식 바뀌고 국가 지원도 늘어나 번역가들에 대한 대우가 박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출판사에서 번역자에게 원고지 매수당 3000~3500원 정도의 원고료를 지급하는게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매절방식이 거의 없어졌다. 대부분 번역자에게 인세로 번역료를 산정한다. 대체로 단행본은 10% 선에서 인세가 결정된다. 번역물의 경우 이 10%에서 원저자에게 6~7% 정도, 번역자에게는 3~4% 정도가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번역가들은 많이 팔릴 만한 책을 번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중소설이나 비소설 분야는 전문번역이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인문서를 주로 번역하는 교수들은 번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 평가 항목에 번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역에 들인 시간과 공에 비해 금전적인 소득은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번역에 대한 인식이 낮고, 출판시장 자체가 협소해 번역작업에 대한 물질적 혜택이 낮다는 점, 특히 번역을 최소한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공색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풍토 등이 우리 번역문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번역에 대한 학계의 낮은 평가는 인문서번역의 커다란 걸림돌이다. 번역작업을 연구 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수한 학술서를 소개할 수 있는 전문번역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인문번역서 편집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출판계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번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지적이다.

열린책들의 김영준 편집장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문화는 서로 연결돼 있다. 출판문화만, 또는 그 안에서 번역문화만 앞서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1960~70년대는 번역물의 황금시대였다. 그 당시 독서체험에서 번역물이 차지하던 비중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김편집장은 “우수한 번역서가 금세 사라지고, 고전이 시장에 들어가서 오래 버틸 여지가 없는” 출판문화의 천박성을 극복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근기자

전문적인 식견 갖춘 편집자 배출돼야

정영재 아카넷 출판팀장

현재 전문학술서의 번역출판 현황은 어떤가?

“대중서, 아동물의 번역 계약은 늘어나는 데 비해 전문학술서 번역 계약은 줄어드는 편이다. 전체적으로 전문학술서 출판은 저조한 상황이기도 하다. 인문서에만 주력해서 살아남기 힘든 출판시장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이 있는 편집자도 부족한 형편이고 적절한 번역자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번역자 선정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어렵다. 첫번째는, 좋은 번역을 할 만한 역량은 되지만 번역을 기피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좋은 번역을 할 만한 역량이 없으면서 무모하게 번역하려고 덤벼드는 경우다. 해당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면서 그 분야에 식견이 넓은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좋은 번역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좋은 번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대우학술총서〉의 경우 번역자에게 ‘연구번역’ 과제를 준다. 주석을 통해 개념어에 대한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자들을 위한 역자의 자세한 해제를 덧붙이는 것이다. 여기에 편집자가 저자의 연보와 편집자주를 더해 원전에

대한 일반지식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학술서 번역출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가?

“학술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춘 편집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번역자와 공동 작업을 할 정도의 능동적인 편집자가 많이 배출돼야 한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번역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고 번역 작업에 들인 공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재단이나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